

3년 만에 열린

SAU Festival!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안정세가 뚜렷하고, 야외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야외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을 수 있던 현행에서 지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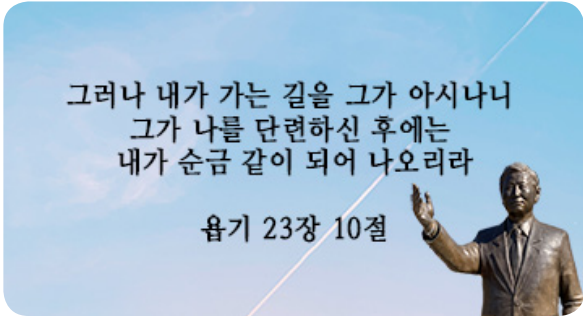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3년 동안 열지 못했던 SAU Festival이 열렸다. 학생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학식, 졸업식, 동아리 활동, SAU Festival, MT 등을 하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제28회 SAU Festival에 참여했다.

제28대 총학생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3년간 이루어지지 못했던 행사와 축제로 일상이 위축되었던 학생들에게 학업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신안산대학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SAU Festival을 개최하였다고 한다. SAU Festival은 체육대회, 공연, Free Market Zone으로 구성되었다.

안전한 SAU Festival을 위해 사무처, 학생취업처, 총학생회에서 시설 점검 및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을 위해 SAU Festival 개최를 기획하고 실행해 주신 제28대 총학생회와 교내 직원분들께 감사의 전한다.

편집장 전호빈



우리 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학보사 페이스북 페이지 문의

saupress@naver.com

INDEX

▶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 2022학년도 20년 근속 교직원 공로패 시상식

▶ 스포츠 예능의 新 패러다임

▶ '골 때리는 그녀들' 본교 방문하다

▶ 난 누구 여진 어디

▶ 미식여행 여섯 번째 이야기, 커피(Coffee)

▶ 제4차 산업혁명 과학시대의 철학

▶ SAU Festival

▶ WM센터 신안산대학교로 이전

▶ 평생교육원 외부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 우크라이나 구호물품 지원 발대식

▶ 실용댄스와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참가

▶ 김민성의 미국기행(奇行)기 3

▶ Trickle Up Effect

▶ 만평

2면

3면

4면

5면

6면

7면

8-9면

10면

11면

12면

13면

14면

15면

16면

교육방송국 SABS에서

학우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들려드립니다!

신안산대학교 교육방송국 SABS 인스타그램 (@shinansan_sabs) DM으로
가수, 노래제목, 원하는 요일, 방송 시간대를 보내주세요!

점심방송 : 12시 30분 저녁방송 : 5시 40분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신안산대학교에 온 헌혈 버스



2020년부터 한국에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회, 문화, 경제 등 많은 방면으로 타격을 주었다. 그중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건 의료계로, 코로나19 초기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확진자 간병, 격리 등으로 심한 인력난을 겪었다. 거기에 더해 혈액난까지 겪게 되었다.

“어려운 시기에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헌혈자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헌혈금지기간 안내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헌혈 참여 •

- ☑️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7일 후 헌혈 가능**
-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참여 추가 배제**

※ 2회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1회차 백신 접종 7일 후부터 2회차 백신 접종 전까지 헌혈 가능,
2회차 백신 접종 시 다시 이로부터 7일 후에 헌혈 가능

▲ 신안산대학교 학생취업처 제공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7일 후 헌혈 가능,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 참여 추가 배제를 시켰다. 또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격리 해제 이후 4주 동안 헌혈이 불가능하였다.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헌혈 가능한 사람이 더욱 줄어들었다.

혈액 적정 보유량은 5일분인데 한참을 못 미치고 O형과 AB형은 간신히 3일분을 유지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헌혈 관련 근거 없는 괴담이 떠돌았다.

‘백신 접종자의 혈액은 별도 관리된다’, ‘헌혈을 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다’ 라는 괴담이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 본부에서는 “헌혈부터 수혈까지 과정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혈액을 관리하는 절차는 동일하며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는다. 코로나19는 혈액 매개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헌혈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헌혈자들의 헌혈 참여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만큼, 혈액 부족으로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바로 헌혈이 필요한 환자들이다. 환자들끼리 피가 부족하여 수술을 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에게 필요한 피를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지정 헌혈을 부탁하거나, SNS에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며 환자에게 지정 헌혈해 주기를 호소하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자 본 교에서는 헌혈의 날을 맞이하여 신안산대학교 사랑의 헌혈운동이 개최하였다.

목양관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헌혈차량이 와서 2022년 4월 6일 10:00~16:00까지 헌혈을 받았다. 신분증을 지참한 사람들은 헌혈이 가능했다. 헌혈버스에서는 헌혈자에게 기념품과, 혈액검사로 건강관리를 해주고, 봉사 4시간,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해 주는 등 여러 혜택을 주었다. 특히 기념품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문화상품권, 영화관람권,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편의점 교환권 5천 원권, SPC 화식 교환권 5천원권, 카밀 핸드크림 등을 증정했다. 헌혈의 날 이후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4월 18일 거리 두기 해제를 하면서 3년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것이다.



▲ 2022년 3월 29일 혈액보유현황(출처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2022년 5월 18일 혈액보유현황(출처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방역 상황 또 의료 상황은 확실히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숫자는 20% 정도 이하로,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특히 중증 병상 가동률도 10주 만에 20%로 내려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역 상황 호전과 의료대응의 안정세는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

분과 그리고 헌신적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서 노력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며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였다. 코로나19의 안정화로 약 2주가 지난 후에는 혈액 절대 부족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혈액 절대 부족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혈액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로는 코로나19로 소방과 경찰, 군인들의 헌혈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며 이들이 다시 헌혈에 나섰다. 특히 홍천에서는 소방서에서 소방서로 이어지는 릴레이 단체 헌혈, ‘119 헌혈 세이버 챌린지’ 행사를 하는 등 여러 노력이 합쳐진 결과이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 본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로 확진자 헌혈 배제기간 기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혈액관리 위원회는 코로나19와 혈액의 상관관계 및 안정성, 헌혈자와 수혈자의 안전, 해외 주요국 헌혈 배제기간 등을 검토하여 헌혈 배제기간을 조정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확진자 헌혈 배제기간을 살펴보면, 3월 중순 기준으로 호주는 증상 소실 후 7일, 무증상자는 진단 후 7일, 영국은 증상 소실 후 7일, 무증상자는 진단 후 10일, 미국은 증상 소실 후 10일, 무증상자는 진단 후 10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 본부는 “연초부터 본격화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헌혈자가 전년 동기 대비 7만 명 가까이 감소하는 등 혈액 절대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치료 종료(완치) 후 4주간 헌혈을 할 수 없었던 확진자 헌혈 배제기간이 10일로 단축되었으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2년, 730일 사이 혈액 보유량이 안정적이었던 날은 120일뿐이다. 코로나19는 완화된 것뿐이고, 완전 종식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현재 피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다.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의 급증에 대비해 헌혈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여 환자가 치료도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편집장 전효빈

2022학년도 20년 근속 교직원 공로패 시상식

지난 5월 30일 신안산대학교 본관 세미나실에서는 2022학년도 20년 동안 신안산대학교에서 근속한 교직원들의 공로를 축하하는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근속 교직원의 수상자로는 교원 6명과 직원 5명, 총 11명이었다.

순번	구분	소속	성명
1	교원	기계과	오영탁
2	(6명)	멀티미디어컨텐츠과	안동찬
3		호텔조리제빵과	오혁수
4		실내디자인과	홍승대
5		웹툰출판미디어과	김은영
6		교양과	최조연
7	직원	사무처	서동조
8	(5명)	사무처	지상욱
9		사무처	이동석
10		교무혁신처	황순민
11		산학협력처	김은혜

▲ 2022년도 20년 근속 수상자 명단

공로패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격려금을 전달하며 그동안의 공로와 본교에 힘써주신 점을 높이 여기며 근속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로패를 수상한 교원으로는 오영탁 교수(기계과), 안동찬 교수(멀티미디어컨텐츠과), 오혁수 교수(호텔조리제빵과), 홍승대 교수(실내디자인과), 김은영 교수(웹툰출판미디어과), 최조연 교수



▲ 2022년 20년 근속 교직원 공로패 시상식

(교양과)였다. 직원으로는 서동조, 지상욱, 이동석(사무처), 황순민(교무혁신처), 김은혜(산학협력처)가 수상하였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학생들의 삶과 그들의 배움의 길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는 좋은

지도자의 역할과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총 11분께 진심 어린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 앞으로도 본교 학생들과 더불어 성장해나가길 바란다.

정기자 전예원

경영학과 이용조 학생의 빛나는 순간을 기록하며

2022년 신안산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이용조 학생을 본교 에버그린홀에서 만났다. 이용조 학생은 1942년 생으로 만 80세의 나이이다. 이용조 학생은 어린 시절 한국 전쟁을 겪고 그 후에 영신 학교 초등학교과정으로 졸업하고 최근 4년간 평생교육기관에서 중학교 2년, 고등학교 2년 과정을 밟고 총 4년간의 중·고등학교를 2022년 2월에 졸업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말하는 ‘공부를 시작하기 늦은 나이’ 일 수 있겠지만, 그의 학업을 향한 열정은 절대 식지 않았다. 실제로 많은 나이에 시작한 학업이라 그가 힘들어할까봐 주변 지인들과 자녀들은 그를 말려왔다.

하지만,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업을 향한 빛나는 열정은 식지 않았다. 안양 상업고등학교 졸업 당시 선생님들과의 진지한 상담으로 신안산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는 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과 선택도 쉽지만은 않았다고 전했다. 졸업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사회복지과와 세무회계과를 고민했지만,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서로 돕고, 조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지난날 전문적으로 배워온 것이 없어 농사와 건설 현장일, 시정 임시직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일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며 6남매를 자랑스럽게 키워냈다”고 그의 인생을 회고하였다. 또한 나이가 들어 단지 학업의 한을 풀기 위해서만 대학에 온 것이 아니라 졸업하면 주택관리사를 목표로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성실히 보내며 매 학기를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이용조 학생은 정말 ‘숫자는 나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이용조 학생은 본교뿐만 아니라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가 다시 학업의 길을 시작하려 할 때 그 안에는 술한 시련과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그가 다시 한번 멋진 열정으로 본교에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도 그의 집에서부터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굴리며 신안산대학교로 향하는 이용조 학생에게 큰 응원의 박수와 존경심을 보낸다.

정기자 전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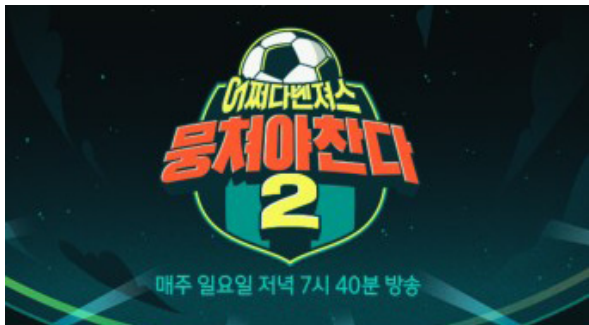
▲ 신안산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81세 만학도 이용조 학생



스포츠 예능의 新 패러다임 ‘골 때리는 그녀들’ 본교 방문하다

스포츠 예능이 각광받고 있다. 말 그대로 대세다. ‘무한 도전’, ‘1박 2일’ 등의 리얼 버라이어티, ‘슈퍼맨이 돌아왔다’, ‘용감한 솔로 육아 - 내가 키운다’ 등의 육아 예능, ‘나 혼자 산다’, ‘미운우리새끼’, ‘전지적 참견 시점’ 등의 관찰 예능과 ‘꽃보다 청춘 시리즈’, ‘바퀴 달린 집’ 등의 여행 예능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예능들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요즘에는 스포츠 예능이 이러한 고공행진 기류에 합류했다.

최근 스포츠 예능의 상승 기류의 시작은 JTBC에서 방영하고 있는 ‘몽쳐야 찬다’라고 할 수 있다. 기획 의도는 ‘대한민국 스포츠 일인자들이 전국 축구 고수들과의 대결을 통해 조기축구계 전설로 거듭나기까지 불타는 승부욕, 실패와 좌절, 값진 승리의 순간이 함께 하는 스포츠 레전드들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다. ‘몽쳐야 찬다’는 각 분야의 스포테이너(Sports Entertainer, 연예인처럼 다양한 재능과 끼를 갖추고 방송 활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을 잘 활용한 프로그램이다. 출연자로는 이동국(축구), 김동현(이종격투기), 박태환(수영), 모태범(스피드스케이팅), 김요한(배구), 강철구(스키) 등이 있다. TV 조선에서 방영 중인 ‘골프왕’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실외 골프와 골프 라운딩(골프장 코스를 돌며 골프 경기를 하는 것에 대한 갈증을 몸소 해소해 주고 있다. ‘골프왕’은 골프를 잘 몰라도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재미와 신선함을 보여준다. 또한, 매주 출연하는 골프계 최강자 게스트들과 승부를 펼치기도 하고, 특급 노하우까지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관전 포인트이다.



▲ JTBC, 어쩌다벤저스 몽쳐야 찬다 시즌2



▲ TV 조선, 골프왕

이러한 스포테이너들이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축구를 시작하면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몸짓과 헛발질은 웃음을 자아내는 예능 포인트다. ‘몽쳐야 찬다’의 스포츠 예능의 성공 전략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풀어낸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골 때리는 그녀들’ (이하 골때녀)이다. ‘골때녀’는 ‘몽쳐야 찬다’와 같은 축구가 종목이지만 공을 차는 주체는 여성이다. ‘골때녀’는 프로그램 이름답게 아나운서, 배우, 가수, 모델 분야 등의 여성 출연자들이 모여 팀을 나눠 축구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출연진으로는 배우 박선영, 탤런트 안혜경, 테니스 선수 전미라, 탤런트 최여진, 모델 이영진, 이현이, 송해나, 아이린과 개그우먼 조혜련, 김민경, 오나미, 이은형, 김혜선 등이 있다. 시즌 2인 현재 ‘골때녀’의 팀으로는 개그우먼들로 이루어진 FC 개벤저스와 모델로 이루어진 FC 구척장신과 탤런트 겸 엔터테이너로 구성된 FC 액세서니스타와 FC 원더우먼, 가수들의

집합인 FC 탑걸, 아나운서로 구성된 FC 아나콘다로 총 6개의 팀이 있다. ‘골때녀’는 축구장과 축구 게임은 남성들만의 스포츠, 전유물이라는 기존의 보편적인 개념을 타파하고 있다.



▲ SBS, 골 때리는 그녀들

무엇보다 ‘골때녀’가 시청자를 사로잡은 인기 비결은 축구를 향한 출연진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노력이라는 것이다. 최근 ‘골 때리는 그녀들’ 33회에서는 FC 아나콘다의 윤태진 선수가 턱을 맞는 부상에도 경기에서 퇴장하지 않고 의지를 불태우며 다시 일어나 경기에 참여했다. 또한 44회에서는 FC 국대패밀리의 에이스인 이정은 선수가 공을 차다 발목의 큰 부상을 입었지만 치료에 매진하고 훈련을 다시 시작하며 경기에 나서는 이른바 부상 투혼을 몸소 보여주었다. 온몸에 부상을 안고도 촬영 스케줄이 없을 때는 따로 연습에 빠져 사니 선수들의 축구를 향한 진심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없다.



▲ SBS, 골 때리는 그녀들 19회 중 캡처(2)

‘골 때리는 그녀들’ 출연 후 축구를 처음 접하게 된 출연진들도 있는가 하면 그동안 쪽 축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선수들도 있다. 국악 소녀로 잘 알려진 FC 원더우먼 팀의 에이스인 송소희는 ‘골때녀’ 시즌 2에 합류하여 “축구하기 전과 후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의 우정에 대한 동경이 있었으며, 학생 때 점심시간에 남학생들은 축구와 농구를 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었고 성인이 되어 동호회를 찾아보다 결국 남의 회사 축구 동호회에 가입했다”라며 웃으며 말했다. 현재 그는 모든 스케줄을 축구에 맞추어 가며 송소희는 매주 풋살을 한 지는 1년째라고 이야기했다. 이뿐만 아니라 송소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독학으로 축구를 연구하며 연습에 매진했다고 강조했는데, 자신이 축구에 재능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내에서 ‘쌍소’ 콤비

로 활약하고 있는 그룹 새소년의 보컬이자 기타리스트 황소윤도 2021년 초부터 직장인 풋살팀에서 축구 연습을 하고 있었던 그 역시 축구 마니아였다. 유치원생 때부터 남자아이들과 몸을 부딪치며 땀 흘리며 축구를 하던 것이 일상이어서 전혀 거리낌 없이 ‘골 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황소윤은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송소희와의 화려한 콤비는 감탄을 자아낸다.

▲ 신안산 풋살파크 (출처 : <https://blog.naver.com/wedding4678/222626224942>)

최근 ‘골때녀’ 선수들이 본교를 방문했다. ‘골때녀’ 선수들은 4월 27일 본교 내에 있는 신안산 풋살파크장에서 경기를 펼쳤다. 4월 27일 방송된 40회에서는 두 시즌 연속 우승팀인 FC 불나방과 최근까지 리그를 뛰었던 FC 구척장신의 슈퍼리그 개막전으로 더욱 강력해진 기세로 기대감을 높였다. 더욱 끈끈해진 유대감으로 뭉친 FC 불나방은 슈퍼리그를 앞두고 있을 때에도 쉬지 않고 단체 연습을 진행했음을 전했다. 전미라 선수의 귀환과 에이스 유망주인 막내 서동주 선수까지 멤버 전원의 성장을 기록해 기대감을 높였다. ‘골 때리는 그녀들’은 본교 신안산 풋살파크장에서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세 달간의 화려한 불꽃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 경기를 하고 있는 FC 불나방 박선영 선수와 FC 구척장신 송해나 선수 (출처 : SBS 골 때리는 그녀들 공식 홈페이지)



▲ 골 때리는 그녀들 출연진 단체사진 (출처 : SBS 골 때리는 그녀들 공식 홈페이지)

스포츠 예능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을 통해 한여름의 무더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그들이 전달하는 강한 에너지를 느껴보길 바란다.

정기자 전예원

난 누구? 여긴 어디?

이규현 목사
은혜의동산교회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정상이 부대에 있는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중간에 우리나라 카투사 병사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는 두 대통령의 대화를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날은 두 대통령이 병사들 사이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 병사가 가운데 앉아서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트럼프, 왼쪽에는 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두 대통령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간에 이 젊은 병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바짝 긴장해서 앉아 있었는데요. 많은 네티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재미있는 댓글을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YTN에서는 이 장면을 방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라는 제목을 달아 둔 걸 보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인 거죠. 요즘은 이 말을 ‘난 누구?’ ‘여긴 어디?’라고 짧게 줄여서 개그처럼 사용합니다. 지금 자기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는 어리바리한 상황일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그렇게 가볍게 다룰 질문이 아닙니다. 후기 인상파 대표적 화가인 폴 고갱(Paul Gauguin)이 인생 마지막에 그린 위대한 대작이 있는데, 이 작품의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그림 제일 오른쪽에 보면 어린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누워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어떤 여인이 사과를 따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불상 같은 게 있고 맨 왼쪽에는 머리가 하얀 노인이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앉아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사실 폴 고갱(Paul Gauguin) 자신이 평생 고민하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뭘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화폭에 담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삽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여기 있는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쉽게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찾은 답 때문에 죽기 살기로 살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상사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고 너무 힘들어서 당장 때려치우고 싶지만 그래도 묵묵히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나는 가장이다. 내가 일해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화재 현장에서 다들 살려고 밖으로 도망할 때 현장으로 달려가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소방관들은 ‘나는 소방관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곳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난 누구? 여긴 어디?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보통 사람들은 내 직업이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의 위치 같은 것들에 근거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또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우리는 소명(calling)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설명하자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고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농담으로 우리 막내는 실수로 태어났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본인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생명도 우연히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너무나 멋진 존재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술 작품의 가치는 작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피카소가 만든 ‘황소 머리’라는 작품 보셨습니까? 자전거 안장을 떼서 황소의 머리처럼 세우고 자전거의 핸들을 떼서 황소의 뿔처럼 붙여 놓고 ‘황소 머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작품이 50년 후 경매에 나왔을 때 293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중 누군가가 자기 자전거에서 안장과 핸들을 떼서 ‘황소 머리’라는 작품을 만든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폐기물로 버려지겠지요? 만일 우리가 단지 진화의 결과물이면 어느 책의 제목처럼 털 없는 원숭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에서 말하는 대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만 진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개체는 도태된다면 푹푹하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집 안에서 뽕뽕하게 밀어주는 사람은 계속해서 진화해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이 만든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무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게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24시간 교제하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파르타임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풀 타임으로, 자신들의 삶 전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동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답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른 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이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까?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 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그 때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여러분 인생이 정리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제자가 되라든지 사명을 감당해라 하기 전에 와서 보라고 하시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먼저 주님과 교제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된 다음에 주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무원으로 일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현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을 거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일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셔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 칼빈이 말한 ‘직업 소명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그 일에서 큰 기쁨과 보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 없으면 직장은 단지 내 노동력을 가져가고 내게 돈을 주는 곳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가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난 누구? 여긴 어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미식[美食]이야기⑥



이진택 교수
호텔조리과

미식여행 여섯 번째 이야기, 커피(Coffee)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커피는 다양한 풍미(風味)로 인해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매개체로서 전 세계 무역시장에서 석유에 이어 2위의 물동량을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은 음료이다. 이에 미식여행 여섯 번째 이야기로 커피에 대해 알아보자.

커피는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인 카파(Kaffa) 지역을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예멘(Yemen) 지역에서 처음으로 경작하기 시작하여 초기에는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되다가 이슬람 문화권에 의해 음료로 발전하게 되었다. 커피(Coffee)라는 말은 고대 아랍어인 ‘카와(Qahwah:와인의 의미)’에서 유래하여 터키어 ‘카흐베(Kahve)’를 거쳐 커피(Coffee)라는 말이 탄생되었다. 커피(Coffee)의 발견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에티오피아의 목동인 ‘칼디(Kaldi)’의 전설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어느 날 염소를 치던 칼디는 염소들이 붉은 열매를 먹고 난 후 날뛰거나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빛내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겨 열매를 수도승에게 가져다주었는데 수도승이 확인해 본 결과 염소들이 먹은 열매가 각성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수도사들에 의해 애용되다가 오늘날의 커피가 되었다는 것이다

※수도승(修道僧) : 이 시기의 수도승들은 종교적인 분야는 물론 사회 각 분야를 연구하는 지식인층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공주와 사랑에 빠진 사제(司祭) 오마르가 예멘의 산으로 추방당한 후 그곳에서 발견한 빨간 열매(커피 콩)를 약제로 사용하면서 면직 받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오마르의 전설’을 비롯하여 마호메트가 병상에서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준 검은색의 음료를 마시고 40여 명의 남자를 말안장에서 떨어뜨리고 40여 명의 여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이야기 등의 다양한 전설을 가지고 있다.

커피의 전파

커피를 유럽에 최초로 소개한 사람들은 베니스의 무역상들로 처음에는 이슬람교도들이 즐겨 마셨다는 이유로 배척당하였으나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커피에 세례를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유럽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1896년 아관파천 당시 고종 황제께서 러시아 공사 베베르(Karl Ivanovich Veber)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커피를 접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후 정관현(靜觀軒)이라는 서양식 건물에서 커피를 즐겼으며 당시 서양에서 들여온 것이라 하여 ‘양탕국’이라 불렀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는 ‘다방’이라는 커피전문점이 생겨나 지식인층과 고위층을 대상으로 다방문화가 생겨났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한 미군들에 의해 믹스커피가 상용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커피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이유로 인류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기호음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개체이다. 다시 말해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의 매개체 그리고 산업의 발달로 인해 노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피로회복의 매개체로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상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음료라는데 이유가 있다. 특히 커피가 가지고 있는 효능으로 포만감을 느껴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 효과를 비롯해서 비타민,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기타

로스팅(Roasting) 머신 구조




로스팅(Roasting)의 물리적 변화

색깔							
향	꽃내	단향	단향+신	신향	신향+고유	고유 향	향의 감소

명칭	볶은 정도	스타일과 맛의 특성
약배전	Light roast	아주 얇게 볶음
	Cinnamon roast	얇게 볶음
중배전	Medium roast	보통 볶음
	High roast	미디엄보다 좀더 볶음
	City roast	중간 볶음
강배전	Full city roast	좀 강하게 볶음
	French roast	강하게 볶음
	Italian roast	아주 강하게 볶음

에스프레소(Espresso)를 이용한
카페 라테(Caffe Latte=Cafe au lait)



에스프레소(Espresso)를 이용한
라테 마키아토(Latte Macchiato)



◆ 재료
에스프레소.....30ml
데운 우유150~200ml

◆ 만드는 방법
① 8온스의 유리잔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준비한다.
② ①에 데운 우유 150~200ml를 첨가한다. 데울 때 온도는 65℃ 정도이고 거품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커피 마리아주(Coffe Mariage)

1. 나른한 오후 춘곤증 때문에 졸음과의 사투를 벌이신다면 강하게 로스팅 된 커피와 치즈 케이크
2. 라이트 로스팅(약하게 볶은 커피) 커피는 커피 본래의 쓴맛과 단맛이 느껴지지 않지만 향기가 감미로워서 맛이 가벼운 음식과 잘 어울리며, 다크 로스트팅(강하게 볶은 커피) 된 커피는 스테이크, 갈비처럼 석식, 프라이팬 등에 굽거나 무거운 요리와 마시면 잘 어울린다.

편두통, 고혈압 및 심혈 질환에 긍정적인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라비카(Arabica)와 로부스타(Robusta)

현재 우리들이 음용하고 있는 커피는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Arabica는 Robusta에 비해 향이 뛰어나며 신맛, 쓴맛, 단맛 등을 지니고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두커피라고 부르며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하여 추출 후 음용하는 커피로 이용한다.

Robusta는 아라비카에 비해 재배가 용이하지만 향이 약하고 쓴맛이 강하고 카페인 함량도 많아 대부분 인스턴트커피로 이용한다.

커피 맛의 결정 Roasting

커피의 맛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으로는 커피의 추출 속도와 조화로운 블렌딩(Blending)이라 할 수 있다. 커피를 추출할 때는 생두를 로스팅 한 후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쇄한 후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하여 추출하거나 핸드드립을 통해 추출하게 되는데 압력에 의한 추출 속도와 물의 온도 등에서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또한 품종 고유의 아로마(Aroma)나 유지 성분 등에 따라 맛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원두의 블렌딩(Blending)

은 매우 중요하다.

※블렌딩(Blending)

원산지 별 커피를 혼합하여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과정[원산지 별 커피콩의 배합비율 결정]

그러나 이러한 추출 속도나 블렌딩 외에도 커피의 풍미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로스팅(Roasting:볶음)인데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 커피의 풍미가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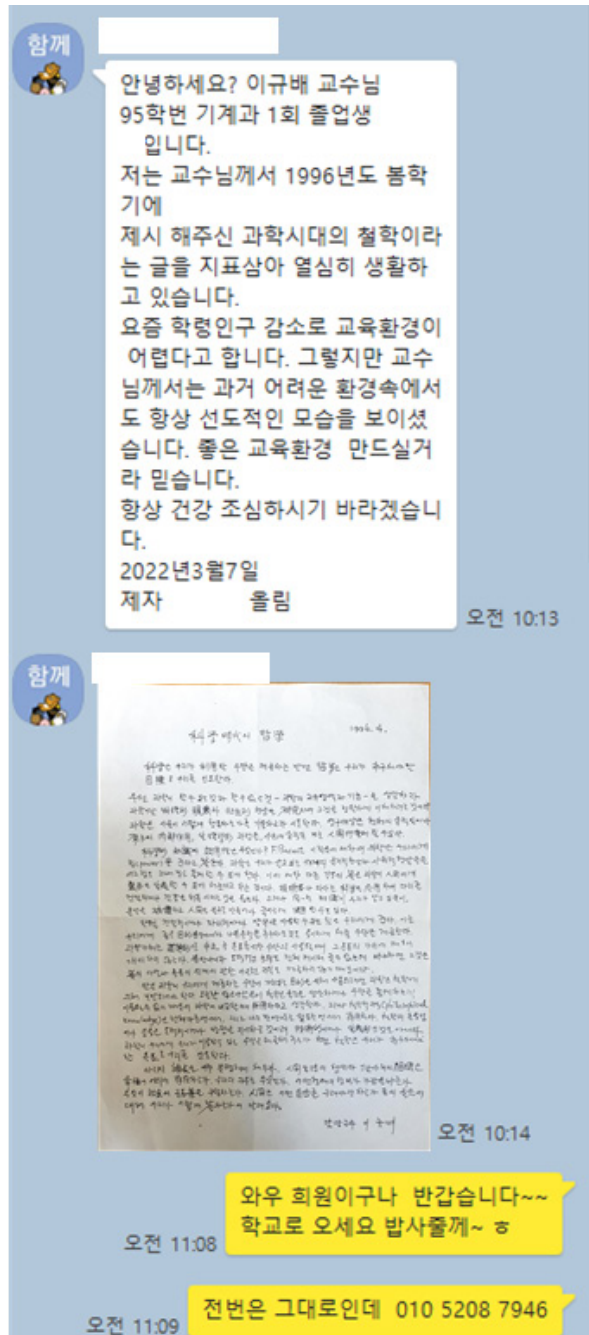
로스팅은 로스팅 머신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림과 같이 생두를 호퍼에 넣고 드럼통으로 이동시킨 후 열기에 의해 로스팅 하게 된다. 이후 원하는 정도의 로스팅이 완료되면 쿨러라는 곳으로 옮겨 식힌(냉각) 후 분쇄하여 사용한다. 로스팅의 정도는 약(弱) 배전(아주 얇게 볶음/얇게 볶음)과 중(中) 배전(보통 볶음/미디엄 보다 좀 더 볶음/중간 볶음) 그리고 강(強) 배전(조금 강하게 볶음/강하게 볶음/아주 강하게 볶음)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향미를 제공한다.

이렇듯 커피는 역사적인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물론 과학적인 가공 과정을 통해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힐링(healing) 음료로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심신이 지쳐가는 이 시기에 한 잔의 커피를 통해 우리들 각자의 심터를 만들어 보자.

제4차 산업혁명 과학시대의 철학 (1995년 입학, 1997년 졸업한 제자를 26년만의 만남에서)



이규배 교수
스마트기계디자인과 교수/공학박사
kblee@sau.ac.kr



우리는 26년 전 1996년 3월 캠퍼스에서 사제지간으로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는 우리 대학 학위를 받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26년 이 지나서 2022.3.7. 오늘 연결이 서로 되었습니다. 그것도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되어서 반갑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1년, 3년, 5년도 아닌 ... 무려 26년 ... 이럴 수도 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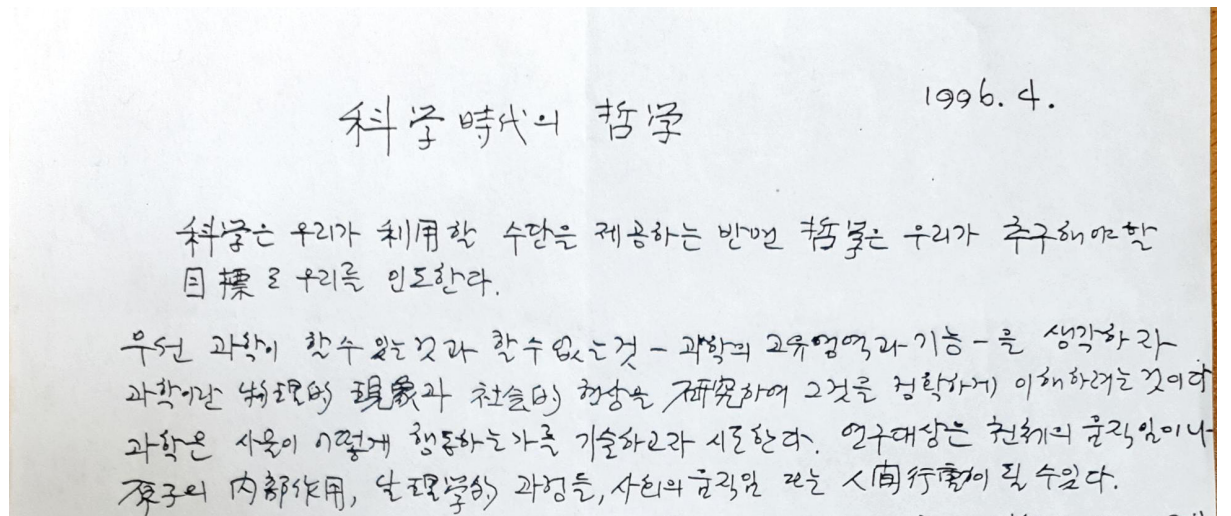
그때 수업 중 받은 1장짜리 “과학시대의 철학”의 종이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글 내용을 지표삼아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니 그 더욱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 제가 20대 후반 박사학위 과정 중에 지도교수님으로부터 받은 글귀를 간직하고 있는 부분과 닮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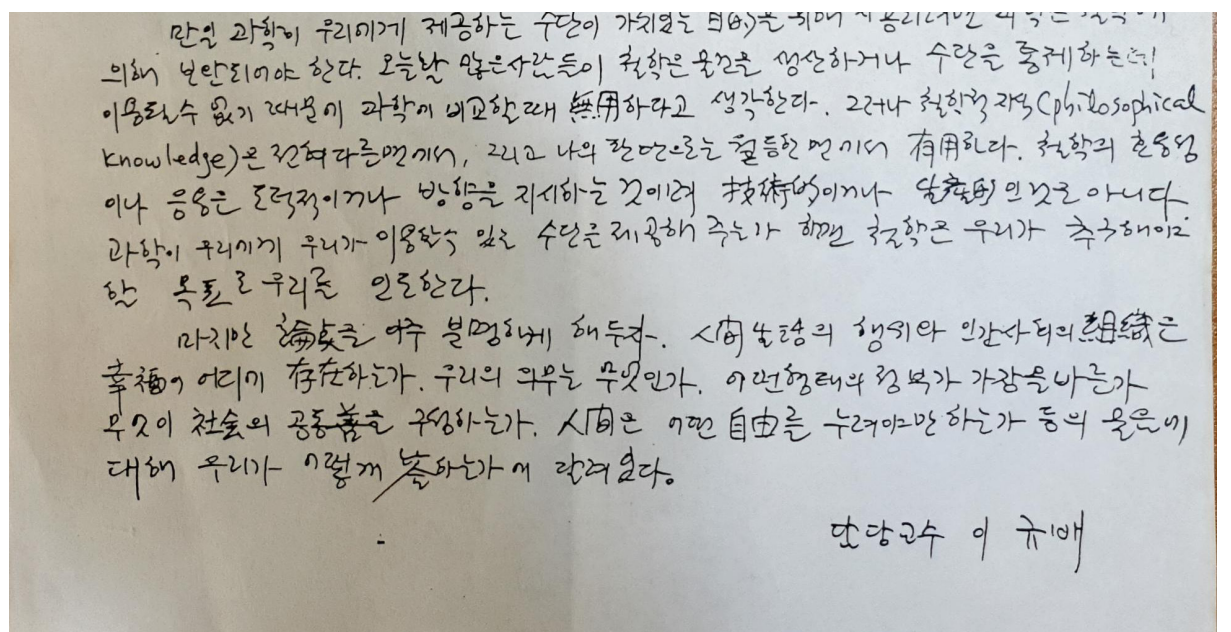
제자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졸업한 지 26년이나 되었는데, 이사를 가더라도, 책갈피에 간직한 A4 용지 한 장이 가끔 보기도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서 좋은 생각을 하였고, 보니까 생각이 나서 교수님에게 용기를 내어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자는 졸업 후 학업을 연장하였고, 현재는 중소기업체 와이솔텍(전공분야 컴퓨터 프로그램) 대표로 일하면서, 대학에서 기계분야 강의를 하는 겸임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강의를 하면서도 문득문득 생각이 많이 나고,



... 중략 ...



감사한 생각이 많아서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제자는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연구실에서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추억담 속에 그때는 공학과 1개 건물만 있었다고 하고 바닥 포장이 되어있지 않은 흙과 바다 진흙을 볼 수 있었다는 즐거운 얘기를 나누었고, 그 후 많아진 대학 건물 본관, 목양관, 도서관과 학생회관, 사회과학관, 국제교육관 등 그리고 조그마한 나무가 아주 많이 자란 잣나무, 소나무, 철쭉 등을 보면서, 함께 거닐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을 교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하고 가끔은 종종 만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오늘은 사제지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서 그때의 손글씨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과학(科學)은 우리가 이용(利用)할 수단을 제공하는 반면 철학(哲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目標)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선 과학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과학의 고유 영역과 기능을 생각하자. 과학이란 물리적 현상(物理的 現象)과 사회적(社會的) 현상을 연구하여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것이다. 과학은 사물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기술하고자 시도한다. 연구 대상은 천체의 움직임이나 원자의 내부 작용, 물리학적 과정들, 사회적 움직임 또는 인간행동(人間行動)이 될 수 있다.

과학적 지식의 효용성(效用性)은 무엇인가? F. Bacon은 이 질문에 대하여 과학은 우리에게 힘(power)을 준다고 답(答)한다. 과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물리적 현상과 사회적 현상들을 어느 정도 지배 통제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대한 다른 각도의 답은 과학이 인간에게 제품(製品)을 생산(生産)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다. 기술자(技術者)나 의사는 과학을 응용하여 다리를 건설하거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을 돕는다. 그러나 동일한 지

식(知識)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건을 파괴(破壞)하고 인간을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는 데 사용(使用)할 수도 있다.

한편,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 이는 우리에게 좋은 목적(目的)뿐만 아니라 나쁜 목적을 추구하는 것도 용이하게 해줄 수단을 제공한다. 과학 자체는 도덕적(道德的)으로 중립(中立), 즉,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 목표의 가치에 대해 개의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방향(方向)도 전혀 제시해 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선(善)의 서열과 목표의 위계에 관한 아무런 지식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수단이 가치 있는 목적(目的)을 위해 사용되려면 과학은 철학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철학은 물건을 생산하거나 수단을 통제하는데 이용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에 비교할 때 무용(無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철학적 지식(philosophical knowledge)은 전혀 다른 면에서, 그리고 나의 판단으로는 월등한 면에서 유용(有用)하다. 철학의 효용성이나 응용은 도덕적이거나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며 기술적(技術的)이거나 생산적(生産的)인 것은 아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가 하면 철학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우리를 인도한다.

마지막 논점(論點)을 아주 분명하게 해두자. 인간생활(人間生活)의 행위와 인간사회의 조직(組織) 중 행복(幸福)이 어디에 존재(存在)하는가.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어떤 형태의 정부가 가장 올바른가. 무엇이 사회의 공동 선(善)을 구성하는가. 인간(人間)은 어떤 자유(自由)를 누려야만 하는가 등의 물음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답(答)하는가에 달려있다.



▲체육대회 개막식

체육대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던 체육대회가 드디어 개최되었다. 체육대회는 약 2주 동안 과마다 연습을 하며 경기에 임했고 예선전을 하여 치열한 경쟁 끝에 체육대회 당일 본선 경기를 통해 각 경기별로 우수한 성적을 낸 학과가 선별되었다.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체육대회 종목마다 정해진 상금이 주어졌으며 그것으로 인해 더욱 불타는 모습으로 경기에 집중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동안 체육대회를 열지 못한 답답함 때문인지 모든 학생들이 들떠있는 모습이었으며 그로 인해 체육대회는 학생들의 참여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이 몇 년 만이지만 모든 과가 합동심이 좋았고 의지가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단체 줄넘기 경기중인 학생들



▲풋살 경기중인 학생들



▲E-SPORT(LOL) 경기중인 학생

종목은 E-SPORT(LOL)와 피구(여), 풋살(남), 단체줄넘기로 4개 종목이다.

먼저 E-SPORT(LOL)은 예선전을 토너먼트 형식으로 PC방에서 단판제로 진행하였으며 기간은 4월 27일~5월 4일까지였다. 11일 당일 오전 11시에 결승전이 시작되었으며 룰은 게임 LOL의 운영 방식을 준용하였다. E-SPORT(LOL)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은 1등 사우나 팀, 2등 호스텔 팀, 3등 룰 팀이다. E-SPORT의 상금은 1등 80만 원, 2등 50만 원, 3등 30만 원으로 경기 종목 중 가장 많은 상금을 차지한다.

두 번째로 여학생들만 참여가 가능한 피구는 예선을 토너먼트 3판 2승제로 하였고 결승전은 5판 3승제로 진행하였다. 피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과는 1등 경호경찰행정과(한비, 배성윤, 정지은, 이다래, 김서희, 김영서, 이송민, 최효정, 김혜지, 이원, 황혜주, 이현주, 박다빈, 김예원, 신민

아, 김재희, 조은서, 윤채린, 류호경, 김지인 학생), 2등 호텔조리과, 뷰티디자인과, 3등 관광항공서비스과이다. 피구의 상금은 1등 20만 원, 2등 15만 원, 3등 10만 원이다.

세 번째로 남학생들만 참여가 가능한 풋살은 경기 인원이 5명까지이고 교체 선수를 7명까지 둘 수 있다. 무승부로 승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경기를 마칠 수 없게 하였고 단판 승부인 경우에는 5번의 승부차기를 통해 더 많이 성공한 팀이 승리한다.

풋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과는 1등 마케팅비즈니스과+아동보육과, 2등 실내디자인과(곽수빈, 임신혁, 강명환, 최성범, 이기찬, 최영균, 김호준 학생), 3등 경호경찰행정과(이규태, 신혜균, 박두원, 백종윤, 고준영, 김동현, 김태현, 성재민, 김도현, 최재민, 김하늘, 박종률 학생)이다. 풋살의 상금은 피구와 동일하게 1등 20만 원, 2등 15만 원, 3등 10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단체줄넘기는 줄잡이 2명, 줄 넘는 사람 14명으로 총 16명이 한 번에 참가하는 종목이다. 총 2회의 기회를 부여하며 가장 높은 기록으로 채점하였고 줄이 연속으로 3번 넘어갈 때까지 뛰어넘지 않으면 줄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로 측정을 멈추는데 여기에서 시간제한이 없어 어느 한쪽이 걸리지 않으면 무작정 계속 뛰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제한까지 있었으면 더 좋은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단체줄넘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과는 1등 건축과, 2등 경호경찰행정과, 3등 관광항공서비스과이다. 단체줄넘기의 상금은 1등 30만 원, 2등 25만 원, 3등 15만 원이다. 모든 경기의 반응은 뜨거웠다. 자신이 속한 학과를 열렬히 응원하고 경기에 임하기 전 서로 파이팅을 하는 모습까지 여느 다른 체육대회보다 더욱더 현장감이 달아올랐다.

SAU Free Market Zone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동시에 각 학과마다 준비한 프리마켓 부스를 운영하여 재미있는 게임이나 과의 특성을 살린 부스를 만들어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수많은 학생들이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였고 무엇이 과의 특성을 잘 살릴지 과의 특성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부스를 만들어 다른 학생들의 이목을 끌지 아이디어를 내었다.



▲SAU Free Market



▲SAU Free Market

프리마켓 운영을 희망하는 학과는 SAU Festival이 열리기 1개월 전인 4.4(월) ~ 4.11(월) 18:00까지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하면 신청 학과에는 천막(1동 규격: 3m x 6m), 테이블, 의자가 지원되며 외부업체에서 설치를 맡았다.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품목 또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대형 가스통, 숯불, 교내 환경을 오염시키는 품목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음료 등 판매 시 플라스틱, 캔, 종이컵은 허용하였다. 위 사항을 위반 또는 폭력 발생 시 해당 부스는 폐쇄하는 규칙도 있었다.

상록광장 주변에 위치한 Free Market Zone은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운영되었으며 총학생회에서 발급한 3,000원 쿠폰이 사용 가능하였다. 학교

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주점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 불가로 주점을 운영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총학생회에서는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나나 부스를 준비하였고 멀티미디어컨텐츠과에서는 사진관을 준비하였는데 사진촬영에 필요한 배경과 소품 그리고 촬영한 사진을 출력까지 해주는 사진관 부스를 운영하였다. 실내디자인과에서는 풍선 터트리기와 로또를 준비하였고 로또의 당첨번호는 오후 3시에 발표하였다.

뷰티디자인과에서는 페이스페인팅과 타투 스티커 부스, 교육방송국에서는 신서유기 게임, 학생취업처에서는 취업 홍보 안내 부스를 각각 운영하였다. 앞의 부스들은 게임이나 체험을 위주로 운영한 부스였다면 앞의 부스만

큼이나 반응이 좋았던 음식 위주로 운영한 학과들도 많이 있었다.

경찰경호행정학과에서는 포만콜이라는 포테이토, 만두, 콜라로 구성된 음식을 판매하였고 호텔조리제빵과에서는 김치삼겹밥, 치킨마요컵밥, 닭꼬치를 준비하여 운영하였는데 요리를 전공하는 과이니만큼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음료+에이드, 체험부스(시각 장애체험), 사무비서행정과에서는 카페, 오징어 게임을 운영하였다.

모든 부스들은 참신함과 동시에 많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체험 부스들은 오후까지도 활발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SAU Festival 공연



▲무술 공연 중인 학생들



▲댄스 공연을 선보이는 학생들

체육대회와 부스체험이 모두 끝나고 폐회식까지 마쳤지만 SAU Festival의 열기는 끝나지 않았다.

2부로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공연은 트라이디스팀의 랩 빈지노-jazzfact-always awake, 채고 팀의 노래 브라운 아이드-소울, 류지환,장민혁 학생의 노래(밴드) 짙은-잘 지내자 우리, 김희철, 민소희, 김서영 학생의 노래(밴드) 태일·starlight, MUNION 팀의 노래(밴드) 사랑하긴 했었나요, 벚꽃엔딩, 오민성, 여준호, 이지수

학생의 노래(밴드) 폴킴·느낌, 양다솔, 유세현, 김만수, 박서진 학생의 노래(밴드) imagine Dragons·warriors, 실용댄스과의 댄스, 방대한 학생의 노래 신해철-그대에게, 김규민 학생의 랩 창모-아이야, 이예은(외 11명)학생의 댄스, 경행과 학생들의 무술 등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몇 년간 축제를 열지 못하였고 그런 상황을 가장 아쉬워했던 학생들은 이렇게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학생들인데 이번에 축제를 열게 되어서 정말 한을

풀 듯이 멋진 공연을 펼쳤다.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였고 매력적이고 멋진 공연을 선사한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모든 공연을 마치고 SAU Festival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열심히 준비하여 멋진 공연을 보여준 학생들과 부스를 운영한 학생들 그리고 체육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한 학생들 모두 그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정기자 김우준

WM센터 신안산대학교로 이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다!



▲ 출처 : 안산동산교회

안산동산교회 WM센터가 지난 4월 23일(토) 신안산대학교 지역협력관으로 이전하며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국 관계자와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전 감사예배와 오픈하우스를 드렸습니다.

이전 감사예배 김성겸 담임목사 설교 내용 중 '하나님은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안산시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신안산대학교에 WM센터 이전을 상상만 하였습니다. 여기는 환경이 너무 좋으니 상상을 했던 적

은 있는데 사실 신안산대학교를 이렇게 우리가 이전하고 입주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 '저는 여기가 사랑이 있고 미래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코이노니아 마당, 플랫폼으로써 WM센터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셋방을 얻었다. 입주했다." "차원이 아니라 이곳에서 앞으로 일어날 교류와 교제와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이 신안산대학 우리 주변 이웃들, 내국인, 외국인, 모든 시민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라고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다.



▲ 출처 : 안산동산교회



▲ 출처 : 안산동산교회



▲ 출처 : 안산동산교회

참석한 분들에게 새 WM센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해주셨다. 몽골어 예배부 여기 전도사: 원곡동에서는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지체들이나 나라별 성도들과 사용하는 층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서 누가 누구인지 인사 나누기도 어려웠지만, 이곳에는 한 층에서 교회학교 아이부터 누구나 만나면 인사하고 한 공동체라는 걸 쉽게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대학 내 지역협력관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신안산대학에 유학하러 온 몽골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센터로 초대하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베트남어 예배부 전유리 집사: 일상에 쪼

든 베트남 성도들이 원곡동보다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심을 얻고, 나눔에 집중할 수 있는 신안산대학교 내 지역협력관으로 이전하여 감사합니다. 대학이란 곳을 이렇게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WM센터 교회학교 부장 김선숙 집사: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뛰어놀 공간이 생긴 것에 감사합니다. 교회학교는 도서관이라는 컨셉으로 지역 아이들에게 다가갔으나, 실상 도서관에서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종종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전한 곳에서는 아이들이 주변에 꽃과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쉽게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편집장 김성진

신안산대서 고잔고 졸업앨범 촬영



▲ 출처 : 입학홍보처

이번 앨범 촬영은 작년에 이어 2년째 진행되는 행사로 20만평의 캠퍼스 모두를 졸업앨범 촬영장으로 대여해 오고 있다. 고등학교의 졸업앨범은 예전과 다른 청소년문화를 볼 수 있다. 다양한 소품과 분장을 동원하여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

들어 가고 있어 그들만의 축제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

학생을 인솔한 교사는 "넓은 캠퍼스에서 하루 동안 마음껏 자신들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2년 전부터 신안산대학교의 협조를 받고 있다. 우리 학

생들이 코로나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보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장소를 제공해 준 신안산대학교에 감사한다"라고 인사말을 남겼다.

신안산대학교는 대학개방의 일환으로

지역 내 고등학교와 공공기관, 교육지원청에 이르기까지 대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 공공기관 대여 문의는 입학홍보처 031-490-6510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편집장 김성진

평생교육원 외부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 외부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사진

지난 5월 31일 평생교육원이 주관하는 외부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이 본교 국제 교육관 국제홀에서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평생교육팀장의 개회사로 수여식을 시작하였고, 국민의례 후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장학 기관은 제 23대 AMP 총동문회, ㈜동화테크, 신안역총회, 신안역회, 송암개발 외 30여 곳이다. 장학금을 받은 건축과 2학년 추지희 학생은 “대단히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좋은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 기회로 등록금에 대한 금적전인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전했고, 같은 과 2학년인 이지혜 학생도 “장학금을 주신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장학금 받은 것을 계기로 조금 더 노력해서 성적 장학금까지 받고 학교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대표님들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학증서 수여 후 본교 강성락 총장의 격려사와 박재영 AMP 총동문회장의 축사 후 수여식이 마무리되었다. 이 수여식을 주관한 평생교육원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이다.

정기자 민성연



No	장학기관	AMP	대표자	학과	학년	성명
1	제23대 AMP 총동문회	33기	회장 박재영	사회복지과	2	김동수
2	제23대 AMP 총동문회			산업경영학과	4	김이성
3	(주)동아테크	33기	대표이사 박재영	사회복지과	2	강민아
4	(주)동아테크	33기		산업경영학과	4	이상민
5	(주)동아테크	33기		건축과	2	김상복
6	(주)동아테크	33기		산업경영학과	4	기만기
7	(주)동아테크	33기		경호경찰행정과	2	박하윤
8	(주)동아테크	33기		건축과	2	박수환
9	신안역총회	17기	회장 김봉식	호텔조리과	2	이수정
10	신안역회	19기	회장 임재명	관광항공서비스과	2	유주희
11	송암개발	17기	대표 안영철	산업경영학과	4	남윤미
12	대신전기산업(주)	27기	대표이사 시정순	호텔조리과	2	임현주
13	(주)경기에너지	37기	대표이사 김영일	멀티미디어콘텐츠과	2	이규섭
14	대양지관(주)	97기	대표이사 안성근	기계과	2	서영남
15	대양지관(주)	107기	이사 김판임	기계과	2	김대중
16	광림전건(주)	117기	대표이사 홍희성	전기과	2	원동성
17	(주)아이비클럽학생복	117기	대표이사 배운조	뷰티디자인과	1	김은서
18	(주)진흥후렉시블	217기	대표이사 이동하	컴퓨터정보과	1	김룡우
19	(주)광철기획	277기	대표이사 신용식	산업디자인과	2	박경빈
20	(주)대웅	287기	대표이사 이명환	기계과	1	서명신
21	서안기공	297기	대표 안시중	호텔경영과	1	황지호
22	대동토지개발	31기	대표 양관수	스포츠지도과	1	윤준성
23	대동토지개발			스마트패키징과	1	윤현기
24	큐브R&D건설(주)	34기	대표이사 김장겸	경영학과	1	이혜량
25	큐브R&D건설(주)			건축과	2	이지해
26	큐브R&D건설(주)			실내디자인과	2	강명환
27	큐브R&D건설(주)			산업경영학과	4	손민범
28	큐브R&D건설(주)			경영학과	2	김길호
29	(주)신명유압	35기	대표이사 채성완	컴퓨터정보과	1	최세림
30	(주)신명유압			산업디자인과	1	이비자
31	(주)거성이엔씨	35기	대표이사 임충섭	뷰티디자인과	2	김현지
32	(주)거성이엔씨			실내디자인과	1	정서연
33	광고세무법인	387기	대표 이철균	경영학과	2	박소연
34	대동서적(주)	41기	대표이사 최창규	경호경찰행정과	1	이준민
35	대동서적(주)			건축과	2	추지희
36	동양열처리	437기	대표 정용석	호텔조리과	1	전문범
37	(주)에이패스	437기	대표이사 서재형	경호경찰행정과	2	정유미
38	44기 원우회	447기	회장 김승호	호텔조리과	1	송도연
39	(주)케이엔디시스템	447기	대표이사 김승호	호텔조리과	1	송도연
40	디에스이	447기	대표 오홍기	뷰티디자인과	1	이정숙
41	(주)에이엘	447기	대표이사 김찬수	뷰티디자인과	1	최은선
42	이양희세무사사무소	457기	대표 이양희	세무회계과	1	송지현
43	창성INC	457기	대표 장갑종	뷰티디자인과	2	김병진
44	(주)하이텍환경	457기	대표이사 구경보	환경과학과	2	이호경
45	(주)바른이엔씨	467기	대표이사 고영기	반려동물과	1	홍도윤
46	(주)청풍건설	467기	대표이사 김승식	뷰티디자인과	1	권수현
47	안산세무서	467기	과장 최육진	세무회계과	1	기예원
48	47기 원우회	477기	회장 한방희	뷰티디자인과	1	이미경
49	(주)에스엔	477기	대표이사 한방희	산업경영학과	3	박동규
50	(주)해성금속	477기	대표이사 차광현	기계과	1	최현수

우크라이나 구호물품 지원 발대식



▲ 우크라이나 구호물품 인도적 지원 발대식 사진

지난 5월 본교에서 우크라이나 구호물품 지원 발대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프로보노 국제협력재단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본교 내의 물류창고의 지원과 물류발송을 위한 물류 공간기부로 이루어졌다. 황우여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 위원회 이사장(전 부총리)은 “우크라이나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아픔을 겪은 나라로 많이 닮은 형제의 나라다”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함께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의 자유와 독립을 얻을 수 있도록 물류공간을 기부해 준 신안산대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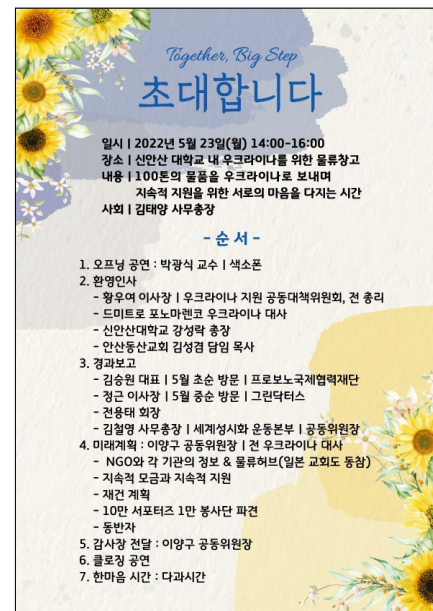
‘특수 군사작전’이라는 이름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본격적

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00일이 넘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폭발음이 들리고 인근 공항에 러시아군이 출몰하면서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항전에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이클 클라크 전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소장은 “러시아가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면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8일 계약제 군인 모집에서 상한 연령을 없애는 군 복무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기존 법안은 러시아인 18~40세, 외국인 18~30세로 연령 제한을 뒀다. 앞서 러시아군은 지난 3월 징집 가능 연령을 기

존 55세에서 65세로 높이고, 18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모병에 나서기도 했다. 콘라드 무지카 폴란드 로찬컨설팅 연구원은 “러시아군은 지금 패배하거나 병력을 더 동원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어떤 시나리오로 전쟁이 전개되든 세계 경제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경고등이 켜진 인플레이션과 식량 부족이 심화되면서 정정 불안도 고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시점에 신안산대학교의 우크라이나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물류공간 기부는 더욱 의미가 있으며, 하루 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정기자 민성연



신안산대 야구부 창단



▲ 본교 야구부 창단 선포식 사진

본교는 지난 5월 6일 2023년도 신안산대학교 야구부 창단을 위한 선포식과 감독 임용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 창단 계획을 발표한 교무혁신처 김세환 처장은 “신안산대학교 야구부는 감독과 코치진 4명과 30여 명의 선수진으로 구성하고 유명 지도자를 코칭스태프 진으로 초빙하여 안산시 체육회 및 안산시 야구협회 등과 지역 스포츠 발전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사회 야구문화 발전과 최강 대학야구부를 육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초대 감독으로 임명된 강태원 감독은 “스포츠 중

에서 야구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지역사회 스포츠 문화에 신안산대학교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체계적인 선수 관리로 프로구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한번 실패를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요기 베라의 말처럼 신안산대 야구부는 안산 지역을 대표하는 야구부로서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선수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발전해나갈 신안산대 야구부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소감을 밝혔다. 강태원 감독은 선동열, 이종범, 이순철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야구 선수들이 즐비했던 해태 타이거즈에서 5번의 우승을 경험했다. 팀의 전성기를 함께한 그는 은퇴 이후에도 기아 타이거즈의 스카우트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스카우트로 활동하며 수많은 야구 유망주들을 상대해왔다. 전 주교 코치를 시작으로 다양한 중·고등학교 야구부의 코치를 맡으며 경험을 쌓았던 그는 “스카우트 경험을 살려 선수들을 이끄는 코치가 되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다”라며 “코치를 하면서 나는 야구를 놓을 수 없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치를 하면서 고교 야구보다 대중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대학야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대학야구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뽑히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스카우트나 코치를 하면서 선발되지 못해 대학야구로 간 선수들을 많이 봤지만 그들이 가진 야구에 대한 열정은 뽑힌 선수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대학야구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많다. 야구 선배

로서 그들을 외면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그에게 본교는 야구부 운영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그의 장기적인 안목에 흔쾌히 야구부 창단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강태원 감독은 “지역사회 스포츠 문화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신안산대의 목표와 대학 야구 관심 제고라는 내 목표가 만나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야구부 창단을 결정지을 수 있어 기뻐다”며 “신안산대 야구부를 통해 안산 지역의 야구 붐을 일으키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정기자 민성연



▲ 강태원 신안산대 야구부 초대감독(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실용댄스와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참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경기 안산시 대표 축제인 '제18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Ansan Street Arts Festival)'가 돌아왔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2005년 시작하여 매년 5월 안산에서 열리는 공연예술축제로 거리와 광장을 무대 삼아 연극, 퍼포먼스, 무용, 음악, 다원예술 등의 다양한 공연으로 도시민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우리나라 대표 거리예술축제로 올해에는 5월 5일 개막하여 8일까지 안산문화광장에

서 진행되었다. 축제 기간인 5월 0시부터 9일 오전 5시까지 안산문화광장 흙플러스 사거리부터 AW 웨딩 컨벤션 사거리까지 양방향 도로를 통제하여, 이 기간을 지나는 일부 노선버스도 우회 운행했다. 시민의 안전한 관람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공연 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부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공연 프로그램은 공식참가작, 제작 프로그램, 특별 초청작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획프로그램은 놀이하

는 도시, 靑 자유 구역 #유스 컬처, 시민 버전 6.0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하는 도시는 시민들의 예술적 참여를 통해 안산 도심 거리에서 만들어지는 예술 놀이·휴식공간을 테마로 가지고 있으며, 靑 자유 구역 #유스 컬처는 도심 속 젊은 예술가들로부터 생겨난 서브컬처와 놀이문화를 거리예술과 접목시킨 테마, 시민 버전 6.0은 안산 시민예술 단체들의 공연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유쾌한 난쟁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구성되었다. 부

대 프로그램은 청년예술 마켓으로 지역 청년 예술가를 지원하고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아트마켓이 운영되었다. 3일 동안 총 62개 팀이 참가하여 65작품을 선보였고 23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6일 오후 8시 '밤 내려온다'로 큰 관심을 받은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시민 100여 명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의 공연을 비롯해 봉산탈춤 등 전통공연이 개막작으로 펼쳐졌다.



▲ 개나리 춤 필 무렵 (출처: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홈페이지)



축제 기간 광장 곳곳에는 서커스 예술 놀이터와 포토존이 마련되고, 청년예술가 등 20개 팀이 선보이는 아트마켓, 유리공예·염색·리본공예 등 다양한 체험부스도 운영되었다. 축제 마지막인 8일 오후 8시 30분 불과 불꽃을 이용한 '불 도깨비 폐막 불꽃' 공연이 나흘간의 축제를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광장을 떠나지 않고 질서 있게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은 안산시민들의 수준 높은 관람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대표 거리축제로 손꼽히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신안산대학교 실용댄스와 플레이그라운드 팀이 참가하였다. '靑자유구역 #유스 컬처'에서 5월 7일 오후 4시와 6시, 8일 오후 1시 30분 안산문화광장 광장 靑 구역(롯데시네마 앞편)에서 공연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2022년 신안산대학교에 신설된 신안산대학교 실용댄스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안무 감독을 역임한 강옥순 학과장 지도하에 스트리트 댄스, 코레오그래피, 재즈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실용무용을 전공으로 배우고 있다. 강옥순, 한정연, 박재형, 임수연, 김진술, 이소영 교수님들이 지도하였고, 팀원들은 총 26명으로 고은서, 고찬열, 김민주, 김서윤, 김예린, 김지원, 문채원, 박수연, 신인아, 안예

진, 이민서, 이지우, 임애령, 오은하, 허다인, 김세훈, 김해인, 박재열, 변정원, 유서영A, 유서영, 유지민, 이나경, 이정윤, 임한영, 최은비 학생이다. 학생들은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은 '점점 쪼개지고 나뉘는 나노 사회에서 '우리'가 사라지고 있다. 공동체 의식과 사회 결속력이 사라져 가는 지금,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게 된 순수하던 시절을 꺼내 보며 춤을 통해 playground에서 '우리'가 되어나다'는 공연 소개와 맞게 학생들의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시민들이 호응하고 환호성을 지르게 했다. 입학한 지 2달밖에 안된 신입생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완성도 높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연을 선보인 것을 보니 앞으로의 실용댄스와 학생들의 미래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신안산대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멋진 공연들이 기대된다.

편집장 전효빈



김민성의 미국 기행(奇行)기 3편

김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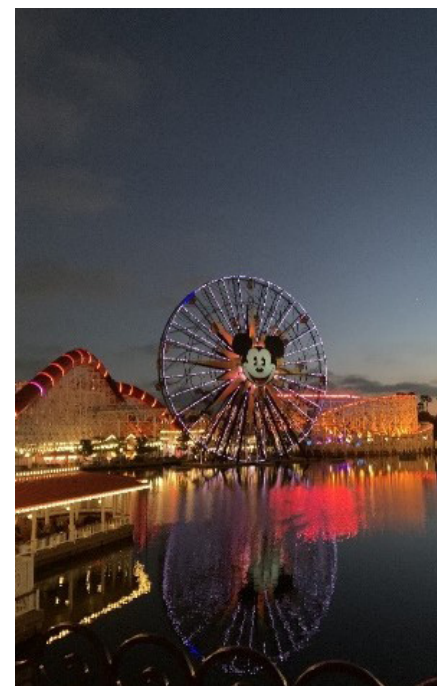
본교 멀티미디어콘텐츠과 22년 졸업생

“최고의 계획은 무계획이다” 영화 “기생충” 대사 中

캘리포니아 즐기기 (1)



친구의 차를 타고 약 5시간 거리의 캘리포니아 LA로 출발했다. 가는 길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대학 미술 관련 학과에서 만들었다는 세븐매직 마운틴에서 사진을 찍었다. 멀리서는 정말 예쁘지만 사실 가까이 가서 보면 그냥 돌에 락카칠을 해놓고 탑을 쌓아 놓은 조형물이다. 우린 다시 차를 몰아 저녁이 되어서야 LA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바로 잠을 자고 LA의 유명한 놀이공원이자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로 이동했다. 디즈니랜드의 첫 느낌은 국내 놀이공원만 못하다고 생각했다. 디즈니랜드라는 느낌도 없고 노래도 없이 한참을 걷다 테마파크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내 생각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완벽한 컨셉의 건물들과 음악, 수많은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선 놀이공원을 못 가본 지 꽤 되었는데 순식간에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난 지도와 쥘리스를 각각 들고 바로 놀이기구를 타러 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그게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였다는 걸... 아무 생각 없이 놀이기구를 타는데 내 생애 그렇게 무서운 놀이기구는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 친구와 난 순간 패닉 상태가 되었고, 기구에서 내리자 뒤에 할머니가 계신 것을 보고 저 할머니는 공수훈련을 받으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우리는 약 삼십 분간을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만 있었다. 이후 다시 다른 놀이기구를 탔지만 처음 탄 것이 너무 무서웠던 탓인지 다른 건 무난하게 즐기며 디즈니랜드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얼굴만 한 칠면조 닭다리를 먹고 쉬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하루를 보내왔다. 여행을 다녀온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디즈니의 감성에서 아직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다음날 우린 산타모니카비치로 향했다. 하지만 엄청난 인파와 비싼 주차비로 인해 급하게 계획을 수정하여 베니스비치로 이동하여 수많은 버스킹 공연과 운동하는 사람들,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며 미 서부의 감성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바닷가를 보고 비버리힐즈를 지나 캘리포니아 할리우드의 상징 할리우드 사인으로 가 해가 지는 것을 보며 추억에 남을 사진들을 촬영하였다. 일몰을 보고 나니 허기가 지는 것을 느꼈고, LA 한인타운을 방문했다.

역시 한인타운이라는 이름답게 한국 그 자체였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한국인이었고, 옆에서 들리는 건 전부 한국말이었다. 음식점 또한 한국인 직원분에게 한국어로 국밥을 주문했다. 하지만 조금 지나다 보니 이질감이 들기 시작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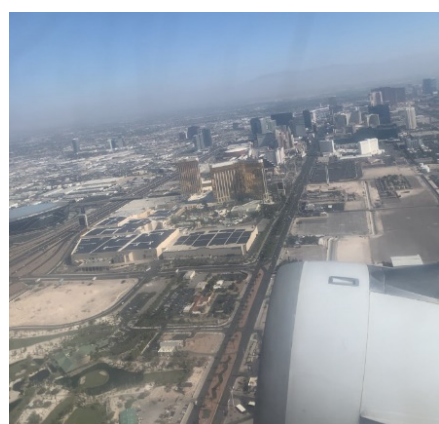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즐기기 (2)

다. 건물의 간판들이 한국어지만 마치 한국의 8,90년대의 느낌이 물씬 들었고, 거리의 미국 느낌과 합쳐져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즐기기 (3)

마지막 캘리포니아 부자 동네의 상징, 부의 상징인 비버리힐즈에 도착했다. 역시 부의 동네답게 명품거리와 수많은 슈퍼카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물론 슈퍼카는 강남의 도산대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난 분위기에 휩쓸려 명품

관에 홀린 듯 들어갔다. 하지만 명품의 가격을 들은 후 바로 나올 수 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조금 걷다 비버리힐즈 사인에서 사진을 찍고, 시원하고 길게 뻗은 나무들 사이를 지나 우리나라 배우 이병헌 배우와 안성기 배우의 핸드사인이 있다는 차아니즈극장 쪽을 보고 다음 여행을 위해 다시 라스베이거스로 왔다.



라스베이거스 도착 후 친구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라스베이거스 국내선 터미널로 향했다. 너무 고마웠던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난 처음 도착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샌프란시스코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정말 나 혼자만의 여행의 시작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난 클리퍼 카드라는 것을 발급했다. 라스베이거

스나 캘리포니아와 달리 샌프란시스코는 교통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고, 교통카드 하나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공항과 이어진 바트라는 기차를 타고 파월역으로 향했다.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보느라 시간이 지난 지도 모르게 도착을 했었던 것 같다. 도착 직후 많은 짐을 들고 다닐 순 없기에 바로 예약을 했던 호텔로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다. 그때 갑자기 카드로 300불이 결제되었다는 안내를 보고 데스크로 찾아갔다. 물어보니 보증금 제도가 있었던 것이었다. 다시 방에 들어가 방도 구경하고 조금 휴식을 취하다 또 계획 없이 주변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다. 사람이 많은 곳을 따라가다 보니 유명 쇼핑센터인 유니온스퀘어를 보며 아이쇼핑을 즐기며 또 정처 없이 걸어다니다 차이나타운과 재팬타운을 지나 가보고 싶었던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을 들렀다. 운이 좋았던 것인지 마침 우리나라의 작가 백남준 작가의 특별전이 진행 중이었고, 난 잠시

바빴던 일정을 뒤로하고 작품들을 감상하였다. 현대미술관을 한 바퀴 돌고 주변의 공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홈리스 노숙인분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 나 또한 반갑게 인사를 하며 공원 잔디에 앉아 이곳 사람들의 일상을 잠시나마 볼 수 있었다. 혼자 춤을 추는 사람 동물과 산책을 나온 사람 잔디에 누워 잠을 청하는 사람들을 보며 잠시라도 안정을 취하다가 저녁을 먹으러 가게로 들어갔다. 매번 짜고 자극적이고 튀긴 음식들만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수를 선택하고 계산을 하는데 직원분이 딱 봐도 거스름돈을 정확히 주지 않았는데 맞다고 우기는 것이었다. 불굴의 한국인인 나는 말을 종동원하여 내 돈을 달라고 약 십 분



진짜 나홀로 여행의 시작

간 실랑이 끝에 내 돈을 쟁취하였다. 기분이나 빠진 난 식사를 하던 중에도 그 직원분을 계속 쳐다보았다. 처음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도 차별을 느꼈던 난 말로만 듣던 샌프란시스코의 인종차별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저녁에 음료수를 사러 나갔다가 주머니 쪽에 칼을 찬 약에 취한 듯한 노숙인이 자꾸 말을 걸며 따라와 재빠르게 마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사고 빠르게 다시 호텔로 들어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느꼈지만 차안과 차별에 있어서는 한국이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다.



Trickle Up Effect

교양과 엄혁 교수

To view certain phenomena happening in society; economists, sociologists, marketing specialist, advertisers, YouTubers, academics, and anyone who has a social or financial interest will try to harness this power. What is this power? Well, let's start with a faucet. When a faucet drips water, one by one, those drops of water become a puddle, then accumulates and fills the sink, soon overflowing to the ground. Over time, these harmless trickles of water gather together and become a tidal wave, a giant force, destroying everything in its path. This is the idea behind the trickle effect. There are two types of effects: the trickle up and the trickle-down effect. The trickle up effect is where lower socio-economic class starts a trend and then moves its way up the social economic ladder to the high class, thus effecting the whole society. The best example of this is hip hop music and its fashion. Hip hop started in the low economic, government housing areas where people were expressing their frustration against police corruptions, government lies, drugs and crime. This genre of music, better know for rap, changed the whole music scene. In the 80s, rap music changed an era of disco and rock music to electronic beats and rap. This genre migrated to the world and in the 90s, it changed K-pop and rap where it became a part of the music scene. Still, in America, rap music did not trickle up to the high class until Eminem entered the music scene. A white rapper who rapped just as well or better than any other black rappers changed hip hop and became mainstream. Hip hop trickled into the upper class where it changed pop music as well. Now, we listen to music with singers and rappers on the same song. While music was changing, hip hop was changing fashion as well. In the 70s, people were wearing bell bottoms. In the 80s, people were fashioning oversized suits, baggy pants, and frizzy hair. Then came along hip hop. Hip hop fashion was still baggy clothes, but with more urban style, brighter colors, and a fashion brand. This brand was

Tommy Hilfiger. Urban legend has it, Tommy Hilfiger was designer clothing for the rich but was not doing so well in business. They were losing money, lots of it. Then one season, their clothes started to sell, they were selling out their stock. Upper management couldn't believe their clothes were selling so fast so suddenly. The stores near poorer neighborhoods were selling out clothes, yet stores in the affluent areas were still losing business. Why? This is where the trickle up effect worked so well. A few black thieves stole trucks full of Tommy Hilfiger clothing and were trying to sell them to the black community. No one was interested. These thieves could not make any money from their efforts. So, they gave away all their clothes. Then, a few popular hip-hop artist got their hands on the free clothing. They wore it in their concert. Soon, the people in the crowd wanted their own. When they couldn't find anything for free or for a big discount, they went to their local shopping mall and started to buy their clothes retail. When all the hip hop artist started to wear similar clothing, people from the upper social economic classes indulged themselves in new clothing. For a while, Tommy Hilfiger, designed clothes for their new hip hop customers. Now, Tommy does not design clothes for the hip hop audience, but they made enough money to revitalize their company and become profitable again. Hip hop is the best example of trickle up effect that we are familiar with. There are other phenomena of trickle up effect that are happening right now that we may or may not be aware of. Look around you, watch the news, follow the trends, and you may see it coming. In my next article, I will explain the trickle-down effect. By understanding these social changes around you, it may help you become aware of the social changes thus helping you make better educated decisions in your life, stock choices, and in your jobs. Until my next article, stay safe and, be aware.

트리클 업 효과

번역 강은정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보기 위해; 경제학자, 사회학자, 마케팅 전문가, 광고주, 유튜버, 학자 및 사회적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이 이 힘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힘은 무엇입니까? 자, 수도꼭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하나 둘 씩 떨어지자 그 물방울들은 웅덩이가 되고 모여서 세면대를 채우고 곧 땅으로 흘러넘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해한 물방울이 한데 모여 해일, 거대한 힘이 되어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트리클 (물방울) 효과 뒤에 숨겨진 아이디어입니다. 효과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트리클 업 효과와 트리클 다운 효과입니다. 트리클 업 효과는 사회 경제적 하위 계층이 추세를 시작한 다음, 사회 경제적 사다리를 상위 계층으로 이동시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힙합 음악과 그 패션입니다. 힙합은 사람들이 경찰 부패, 정부 거짓말, 마약 및 범죄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는 낮은 경제의, 정부가 짓는 주택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랩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장르의 음악은 전체 음악계를 바꿨습니다. 80년대에 랩 음악은 디스코와 록 음악의 시대를 일렉트로닉 비트와 랩으로 바꿨습니다. 이 장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90년대에는 K-pop과 랩을 바꾸어 음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랩 음악은 에미넴이 음악계에 진입할 때까지 상류층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다. 다른 흑인 랩퍼들 만큼 잘 하거나 훨씬 더 잘하는 한 백인 랩퍼가 힙합을 바꾸고 주류가 되었습니다. 힙합은 상류층에 스며들어 팝 음악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노래에서 가수와, 래퍼들이 함께 부르는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이 변하면서, 힙합이 패션도 바꾸고 있습니다. 70년대 사람들은 벨바텀(나팔바지)을 입었습니다. 80년대에 사람들은 오버사이즈 양복, 험령한 바지, 곱슬거리는 머리를 유행시켰습니다. 그러다 힙합이 뒤를 이었습니다. 힙합 패션은 여전히 험령한 옷이었지만 더 도시적인 스타일, 더 밝은 색상,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Tommy Hilfiger였습니다. 도시의 전설에 따

르면 Tommy Hilfiger는 부자를 위한 디자이너 의류였지만 사업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즌, 그들의 옷이 팔리기 시작했고, 재고가 모두 팔렸습니다. 고위 경영진은 그들의 옷이 갑자기 그렇게 빨리 팔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동네 근처의 가게들은 옷을 팔았지만 부유한 지역의 가게들은 여전히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트리클(물방울) 업 효과가 잘 작동했습니다. 몇몇 흑인 도둑들이 Tommy Hilfiger 의류로 가득 찬 트럭을 훔쳐 흑인 커뮤니티에 팔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도둑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모두 공짜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몇 인기 힙합 아티스트가 무료 의상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콘서트에서 그것을 입었습니다. 곧 군중 속의 사람들도 자신의 것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공짜나 큰 할인을 찾을 수 없었을 때, 그들은 동네 쇼핑 몰에 가서 소매 옷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힙합 아티스트가 비슷한 옷을 입기 시작했을 때, 상류 사회 계층의 사람들도 새 옷에 반했습니다. 한동안 Tommy Hilfiger는 새로운 힙합 고객을 위한 옷을 디자인했습니다. 이제 Tommy는 힙합 청중을 위한 옷을 디자인하지 않지만 회사를 활성화하고 다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습니다. 힙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리클 (물방울) 업 효과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다른 물방울 효과 현상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뉴스를 보고, 트렌드를 따라가면 그것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트리클(물방울) 다운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주식 선택 및 직업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다음 기사까지 안전하게 잘 지내세요.

SAU FESTIVAL!

